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2021.4.27~7.27)을 앞두고 남북 정상에게 드리는 글

실로 감동이었습니다! 환희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3년 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두 손 맞잡아 추켜올리며 온 겨레 앞에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을 때, 9월 19일, 전 세계를 향해 평양 선언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구가했을 때 우리 모두 감격에 겨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환희는 비탄으로, 감동은 냉소로, 희망은 좌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대결과 쇠락, 분단의 구시대에 막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레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금 내상이 자리하고, 세계인들은 또다시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퇴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정체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향해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결과 쇠락, 분단의 구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판문점/평양 선언의 즉각적인 이행에 새 시대의 길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남북철도 잇기에 새 시대의 답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 운집한 15만 명의 북녘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철도 잇기 또한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의 간섭과 방해로 용납해선 안 됩니다. 더 이상 미국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야말로 과감하게 미국의 눈치 보기를 끝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미국에 맞서 당당하게 남북철도 잇기에 나섬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는 탄탄한 철길을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 면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트

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제재를 면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대북제재 면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과 남북철도 잇기는 끝내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안보적·경제적 보복을 우려해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과 남북철도 잇기를 망설인다면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경제적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힘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및 미국 제재를 우회해 철도 잇기 등 남북경협과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에 나선다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보복할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철도 잇기와 경협으로 남북이 번영을 누리게 되면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자본들도 한반도 투자를 위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보복으로 한반도 밖에서 잃은 것을 민족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에서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길은 판문점/평양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채택으로 이어졌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과 북미수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판문점/평양 선언이 남북관계에서, 싱가포르 성명이 북미 관계에서 뒤늦게 얻은 옥동자·옥동녀일진대 무력무력 자라서 남북, 북미 관계 발전의 튼튼한 동량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미연합연습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암초입니다. 이제 남북경협과 남북철도 잇기로 민족이 공동번영함으로써 북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발전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정상이 하루빨리 다시 만나야 합니다.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과 남북철도 잇기에 온몸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열차를 타고 서울로 오간다면, 이 열차들이 베이징과 유라시아, 유럽으로 달려나간다면 8,000만 겨레의 힘줄과 핏줄이 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한반도 통일의 생명줄, 젖줄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두 정상이 민족 앞에서 엄숙히 선언한 지난 70년간의 남북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역동의 통일조국을 활짝 열어젖히게 될 것입니다.

2021년 4월 21일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참가단체 대표자 일동